북한의 상징주의와 미래도시

김진애 _ 도시건축가 · 서울포럼 대표

밟아보지도 못한 북한의 땅과 문화와 도시와 건축에 대해서 책을 구상한다는 것은 섣부른 일이긴 해도 상상의 대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발로 걸어보고, 내 손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실천한 후에야 책을 쓸 수 있겠지만, 나의 생애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 다음 주제의 책을 염두에 두고…

첫째 책은 북한의 '심볼리즘symbolism'에 대한 것. 북한 땅 곳곳의 수많은 기념물에서 뿐 아니라 한국전통의 정통성 구현과 계승을 강조하는 건축물들, 그리고 흥미롭게도 유럽 절대주의적 왕정의 권위주의적 도시 계획에 깔려 있는 상징들은 어떻게 잉태되고 전파되었을까. 북한 주민에게 '상징 조작의 우상주의'는 어떤 순작용과 역작용과 반작용이 있었을까? 러시아와 중국의 개방 과정에서 나타났던 우상 비판이 북한에서도 일어날까?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상징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북한의 독창적인 상상력이 작용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

둘째, 미래의 북한의 개방과 경제 자립과 세계와의 교류 과정에 대한 책을 쓸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보람 있는 일이겠다. 도시와 건축은 개방-자립-교류의 필수적인 변수다. 천박한 자본주의에 휩쓸리지 않는 북한, 백 년 가는 인프라가 세워지는 북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뿌리내리는 북한, 동네의 인간성이 살아 있는 북한, 글로벌한 경제력과 문화적 고유성이 통합된 북한 등을 묘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특구, 경제자유구역, 특화도시' 뿐 아니라 중국의 센젠, 상하이, 베이징과 다른 북한 고유의 미래도시 모델은 무엇일까? 사회주의 도시의 특색인 풍부한 녹지와 높지 않은 밀도와 중소도시의 분산 네트워크를 21세기에 어떻게 새로운 잠재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

'북한 사람들'의 순수한 인간다움을 제대로!

한차현 _ 소설가

'우리의 소원, 꿈에도 소원 통일'을 앞두고 남북간 무제한 왕래가 가능해졌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아니고 북조선도 아닌 북한에 대해 무슨 글을 어떻게 쓰겠냐고요? 소설가가 세상을 향해 끄적일 수 있는 것이라곤 두 가지로 소설과 잡문일진대, 우리 땅 북한을 마음껏 걷고 뛰고 노닐며 보고 맡고 느끼는 첫술부터 그깟 잡문일 수야 없는 일이겠지요.

그렇다면 대관절 어떤 소설을? 소설은 기본적으로 사람 이야기이며 소설 쓰기란 다단한 사람 풍경을 깊이 넓게 들여다보기인 바, '위대한 수령 동지' 혹은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와는 상관없는,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빼놓고 말할 수 있는, 6 · 15 남북공동선언과도 무관한, '남북의 창'에서와는 다른, 금강산 백두산 관광과는 더욱 거리가 먼, 민초들의 삶을, 그들의 알몸이 인내하는 가난과 억울과 핍박과 피곤과 고단의 고통을, 거기에 나름의 자족과 사랑과 희망과 꿈까지를 투과해 '북한 사람들'의 순수한 인간다움을 제대로 드러낼 만한 소설이 우선이어야 하겠습니다.

소설이란 그 자체로 어떠한 색깔과 성향과 기울기와 농도 따위의 범주로부터 떠나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내 믿음과 경향은, 북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리하여 인간을 인간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그것이 사회 분위기이건, 체제이건 먹고사는 문제이건-아프고 시린 문제들을 조심히 들쳐볼 수 있는 힘을 예의 소설이 가질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러고 보니 욕심이 하나 더 생깁니다. 궁극의 소설이 사람다운 사람을 향한 이야기이자 사람다운 사람을 들여다보기 위한 다단한 시도이기 위해, 위원장의 위원장에 의한 위원장을 위한 체제로부터 탈출하거나 정면 도전을 시도하는 용감한 '혁명 인간'들의 이야기들을, 흔치야 않겠지만, 혹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남쪽 여군과 북쪽 무역 일꾼이 만난다면

박재규 _ 드라마작가

매사가 군대식 사고로 무장된 남쪽의 여군 장교와 자유분방한 북쪽의 무역일꾼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에 골인한다면 어떻게 될까? 와인과 소주의 취향이 뒤바뀐 듯한 이러한 설정은 적지 않은 해프닝이 예상되지만 서로의 체제와 이념에 상처 내지 않고 최대한 인간적인 향취를 공감하기엔 적절한 이야깃거리 같다. 통일을 목전에 두었을 그 어간쯤이라면 반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슴에 철조망을 둘러쳐 옥죄었던 정치적 색채는 설사 하늘이 내려앉는 한이 있더라도 걷어내어야 할 것이고, 그러자면 서로의 상처를 에두르고 어루만질 이야기는 가족사에 얽힌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밖에 더 무엇이 있을까 싶기 때문이다.

그쯤 되면 북쪽 드라마작가는 또 무엇을 쓰고 싶을지 궁금하다.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야 있겠지만, 그 역시 남북의 이질감을 원격조정하던 정치적 색채는 거부하고자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 서로의 입장을 바꿔 화해하고 용서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할 것엔 이론이 없어 보인다. 다만 좀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분방한 내러티브를 강조하려는 나와, 좀더 집단적이고 민족적인 것을 강조하려는 북쪽 작가의 의견 차이를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바야흐로 민족이 큰 화해를 하자는 마당에 그게 대수인가 싶다.

남과 북이 아무리 달라도 사랑과 가족애, 행복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같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찾아가는 방법론의 문제가 가장 원초적인 차이점일 터. 하지만 남북교류가 무르익은 그때쯤엔 오히려 서로의 이질감이 상대를 이해하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오랜 세월 바위처럼 굳어버린 서먹함과 무덤덤함을 깨워 온 강산이 한 동아리가 되는 통일 마당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깨알 같은 공통점을 찾아내 '혼불'을 지피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통일을 목전에 둔 그 순간 쓰고 싶은 드라마이기도 한 것이다.

'어른들도 받아쓰기 시험에 구슬땀 한 번 흘려보라지!'

김서정 _ 아동문학평론가 · 동화작가

통일이 되면 북한을 소재로 무슨 책을 쓰고 싶은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 지금 원주의 토지문화관에 들어와 있는 나는, 숙소 뒤편의 산길을 오래 걸으며 두서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본다. 통일이 되면 쓰고 싶은 책은, 통일이 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책일 것이다. 뭔가 실증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야기. 동화인만큼 아이들 이야기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탈북자들에게서 들으면 된다. 통일이 돼야 가능한 일은 뭐가 있을까. 남쪽과 북쪽 사람들이 섞이면서 일어나는 기쁨과 감격, 혼란과 갈등 같은 것들이 가장 다이나믹한 이야깃거리일 듯하다. 나는 언어를 다루는 작가인만큼 말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 두 사회의 말이 서로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에 따라 생각들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어른들은 무지하게 헛갈리고, 불편해하고, 서로 못마땅해 할 것이다. 자기들 말이 옳다고 우기며 싸울 것이다. 이때, 짠! 아이들이 나선다. 아이들은 완전히 말을 새로 만들어버린다. 《프린들 주세요》의 닉은 단어 딱 한 개를 만들어 자기 세계를 바꾸었지만, 통일된 남북한의 아이들은 모든 말들을 새롭게, 건강하게, 화해롭게 고치고 만들어내고 퍼뜨려서 통일된 이 나라를 재탄생시킬 것이다. 얼마나 기특한 아이들인가! 어른들은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쩔쩔매며 그 새말을 배워야 한다. 새말로 받아쓰기 시험, 논술 시험을 보면서 좀 달달 볶여 보라지!

이런 공상에 잠기면서 나는 빙그레 웃는다. 내가 아직 글 쓸 힘이 남아 있을 때 통일이 돼서 이 공상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비록 공상처럼 보이는 희망이라도 오래오래 끈질기게 품고 있으면 현실이 된다는 걸 나는 경험상 알고 있다.